

전국 이부자리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 1990~2000년의 비교 -

윤종희¹⁾ · 김정숙²⁾ · 심수광¹⁾

1)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전공

2) 대구산업정보대학 패션디자인과

A Study on Bedding in Korea - The Cases in 1990~2000 -

Chong Hee Yun¹⁾, Jung Sook Kim²⁾ and Su Kwang Sung¹⁾

1)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yungsan, Korea

2) Dept. of Fashion Design, Daegu Polytechnic College, Daegu,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consumer sleeping life in quality and to suggest producers meet new consumer needs and demands, by examining the nationwide use of bedding, analyzing consumer sleeping life by category and age group,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findings of the nationwide studies by Sung Su-kwang (1992) and Lee Song-ja (1995), and identifying the major trend of consumer sleeping life. Results and Discu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 Most of the housewives investigated were in their 30s and 40s, with 41.7% and 50.8% respectively. 2. Bedroom : When it comes to bedroom style, 47.8% put beds in their rooms with the Korean under-floor heating system, and 45.4% didn't place beds in their rooms with the same heating system. 3. The Purchase of Bedding : 49.0%, approximately half the homemakers, bought their current bed-clothes at bedding shops, and just 3.2% made them on their own at home. 4. The Use of Bedclothes : In summer, yam (flax, ramie fabric) and a single-layer bed sheet (41.9%) were in use most, followed by a single-layer quilt (34.5%). 5. Bedding Management : The most common frequency of bedding disinfection by sunning was once a month (29.4%), followed by once per two weeks (23.9%) and once a week (19.0%) in the order named.

Key words : bedding, sleeping environment, quilt, under-quilt, thermal insulation

1. 서 론

수면은 낮의 활동을 좌우할 정도로 그 역할은 중요하며 생애는 하루 약 16~17시간, 생후 6개월~1세는 13시간, 성인은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므로 사람은 하루의 약 1/3이상 침상에서 지내는 셈이 된다(人間-熱環境系編集委員會, 1989). 따라서 주간생활에 있어서의 환경 및 의복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야간의 수면환경 및 침구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면환경의 구성요소에는 소리, 빛, 열, 공기가 있으나, 침구는 이중에서 열에 대해 적절한 신체환경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쾌적한 수면을 이루기 위해 침구가 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또한 시대, 지역, 기후풍토, 민족, 습관 등에 따라 역사적·사회적으로 발전되어온 침구는 일상 사용하는 의류보다도 사용빈도와 사용시간이 많고 사용연수가 긴 것이 특색이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새로운 섬유 개발과 섬유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침구의 구입, 재료, 종류, 사용 등이 복잡 다양화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최근에 있어서의 침구의 사용실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침구 연구를 진행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된다.

국내에 있어서의 의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다소 보고 되었으나, 침구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극히 적어 현재까지 엄희영(1979), 신상석(1984)에 의해 보고된 바 있으나 전국적인 조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水梨 등(1972a, 1972b), 松本(1969), 酒井(1972, 1981), 全日本わた寝装品製造協同組合(1984) 등에 의해 침구의 실태 조사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수면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수요의 방향에 적합한 상품기획을 요구할 목적으로, 침구의 전국적인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침구사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1990년·1995년의 전국조사(成秀光·李松子, 1992)와 2000년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Chong Hee Yun
Tel. +82-53-850-3533, Fax. +82-53-854-4040
E-mail: yjh413@empal.com

2. 연구방법

2.1. 조사 대상자 및 기간

조사 대상자는 가정에서 침구를 취급할 기회가 많고 침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국 10대 도시의 주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로 포집된 4,712명이며, 조사기간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이다.

2.2. 조사도구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11문항, 침실에 관한 사항 6문항, 침구의 구입에 관한 사항 9문항, 침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문항,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문항, 수면 및 수면환경에 관한 사항 9문항으로 합계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조사 대상자 가정에 배부한 후 일정 기간 뒤에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α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alpha=0.73$ 으로 나타났다.

2.3. 조사자료의 처리

설문지 9,400부를 전국 10대 도시에 배부하여 회수한 결과 52.7%에 해당하는 4,712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기입누락 등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4,696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조사자료는 SPSS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m \times n$, χ^2 -test로 처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는 30대와 40대의 주부가 각각 41.7%, 50.8%로써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3.2%로 가

장 많았다. 가족 수는 4명 및 5명이 각각 55.8%, 22.3%이었으며, 주부들의 53.4%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단독주택 거주자가 감소한 반면에 아파트 거주자는 22.6%, 41.1%에서 51.1%로 크게 증가하였다.

3.2. 침실에 관한 사항

침실의 양식으로 침대사용은 47.8%, 온돌방의 사용은 45.4%로 나타났으며, 199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온돌방의 사용은 꾸준히 줄어들고 침대의 사용이 그만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침실의 용도로는 침실로서 사용되고 있는 방은 침실 전용이 가장 많아 65.0%를 차지하였고, 이것은 각 년도별로 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31.2%의 가정이 침실은 수면생활의 장(場)인 동시에 거실, 서재, 아동방 등과 겸용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1990년의 49.0%, 1995년의 34%에 비해서 다소 감소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도에 비해 2000년도는 자녀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침실의 용도가 침실전용으로 사용되는 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의 침실공간은 넓이나 전용성의 점에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주택 사정을 나타낸다.

여름철 침실의 냉방기구로는 선풍기가 63.4%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에어컨의 경우 1990년도의 10.2%에 비해 18.2% 증가한 28.4%를 나타내어 생활수준의 향상을 엿볼 수 있다.

겨울철 온돌 이외에 사용하는 침실의 난방기구로는 난로(석유, 가스, 전기)와 전기장판이 각각 24.3%, 20.7% 이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도 47.7%나 있었다. 이와 같이 침실에 침구 이외의 난방기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침

Table 1. 침실에 관한 사항

N (%)

구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하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3. 침구의 구입에 관한 사항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침구의 구입처는 가정에서의 직접 제조는 1990년도의 22.5%에 비해 크게 저하된 3.2%를 나타낸 결과로 봐서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제조보다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49.0%가 침구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구의 구입빈도는 4~6년(40.7%), 1~3년(3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년도별로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3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침구 구매에 강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모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은 1990년도의 20.1%에서 44.1% 증가한 64.2%를 나타내었고, 양모 이불의 보유수에 있어서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0년도의 79.9%에서 크게 감소한 35.4%로 나타남으로써 양모이불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으며, 1매(18.1%)만이 아닌 2매 이상(46.1%)의 양모 이불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모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도 1990년도의 보유가정 16.9%에서 28.6%증가하여 2000년에는 45.5%를 나타내었고, 보유수에 있어서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990년도의 83.1%에서 감소한 54.3%로 나타남으로써 우모 이불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조금씩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층별로 우모 이불의 선호도를 보면 30대가 가장 낮았고 40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모 이불은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중

년층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침구 구입시의 중시점은 여름 이불에서는 제품이 가진 기능적인 측면이 중시되어서 통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드러우면서 중량은 가벼운 것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년도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 20대에서는 통기성과 흡습성에 이어 색·무늬·디자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겨울 이불에서는 각 년도별로 관계없이 보온성으로 나타나, 겨울 이불에는 보온성이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불의 보온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함으로 측정법의 확립과 충전물의 재료, 중량, 가공과 보온성의 상관, 온습도가 보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4. 침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불은 홑이불1매(76.4%), 홑이불1매+타월1매(16.4%)의 순이었고, 이런 수치는 199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월1매와 홑이불1매+타월1매의 경우 전년도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의 사용에서는 스폰지 요1매(42.2%), 돛자리(37.6%)의 순이었으며, 특히 스폰지 요1매의 경우 2000년도의 조사결과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돛자리 사용은 계절의 특성상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는 이불은 여름철에 비해 극히 다양하여, 면이불 1매(37.3%), 양모이불 1매(10.5%), 화섬이불 1매(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이불 1매의 경우는 1990년도와 1995년도의 조사결과와의 비교에 따르면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

Table 2. 침구의 구입에 관한 사항

N (%)

Table 3. 침구 구입시 중시점

구분	년도	순위		
		1	2	3
여름이불	1990년	흡습성	통기성	두께
	1995년	흡습성	통기성	경량성
	2000년	통기성	통기성	가벼움
겨울이불	1990년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
	1995년	보온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
	2000년	보온성	촉감	가벼움
요	1990년	흡습성	보온성	두께
	1995년	흡습성	유연성	색·무늬·디자인
	2000년	보온성	촉감	색·무늬·디자인

로 나타났으며, 겨울철에 가장 중요시하는 보온성에 맞는 양모 이불과 우모이불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울이불과 병행하는 것은 담요(16.5%)가 가장 많았으나 69.1%는 아무것도 병행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하여, 조사 대상자의 약 1/4이 담요에 의해 이불의 기능을 보조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담요의 사용은 199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봐서 가정에 난방시설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담요의 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는 요는 면요(52.6%)가 가장 많았고, 요와 병행하는 것은 전기담요(18.9%)와 담요(12.9%)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무것도 병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55.9%로 봐서 이것 역시 난방시설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소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침구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침구 사용시의 가장 불만점은 여름 이불에서는 흡습성, 통기성 등이었고, 이러한 사항은 1990년도

Table 4. 침구의 사용에 관한 사항

N (%)

항목	구분	2295(100%)		3957(100%)		4696(100%)	
		1990년	90/95	1995년	95/2000	2000년	90/2000
여름 사용이불	타월 1매	95 (4.1)	▽ -0.7	134 (3.4)	▽ -0.1	154 (3.3)	▽ -0.8
	담요 1매	107 (4.7)	▽ -1.1	144 (3.6)	-	-	-
	홀이불 1매	1134 (49.4)	△ 3.3	2086 (52.7)	△ 23.7	3594 (76.4)	△ 27.0
	홀이불 1매+타월 1매	832 (36.3)	▽ -2.6	1332 (33.7)	▽ -17.3	770 (16.4)	▽ -19.9
	기타	127 (5.5)	△ 1.1	261 (6.6)	▽ -3.4	151 (3.2)	▽ -2.3
여름 사용요	스폰지 요 1매	291 (12.7)	▽ -6.3	253 (6.4)	△ 35.8	1985 (42.2)	△ 29.5
	요 1매	848 (36.9)	▽ -3.9	1304 (33.0)	-	-	-
	요 2매	223 (9.7)	△ 2.4	480 (12.1)	-	-	-
	스폰지+요 1매	652 (28.4)	▽ -23.4	200 (5.0)	△ 7.9	605 (12.9)	▽ -15.5
	덧자리	211 (9.2)	△ 26.1	1395 (35.3)	△ 2.3	1767 (37.6)	△ 28.4
기타	70 (3.1)	△ 5.1	325 (8.2)	▽ -2.4	273 (5.8)	△ 2.7	
겨울 사용이불	면이불 1매	1105 (48.2)	△ 0.5	1929 (48.7)	▽ -11.4	1754 (37.3)	▽ -10.9
	양모이불 1매	241 (10.5)	△ 7.5	713 (18.0)	△ 1.0	892 (19.0)	△ 8.5
	우모이불 1매	24 (1.0)	△ 0.7	66 (1.7)	△ 9.5	528 (11.2)	△ 10.2
	견이불 1매	269 (11.7)	△ 2.3	555 (14.0)	▽ -1.8	575 (12.2)	△ 0.5
	화섬이불 1매	483 (21.0)	▽ -13.1	311 (7.9)	△ 9.3	808 (17.2)	▽ -3.8
	이불 2매	128 (5.6)	△ 0.5	241 (6.1)	-	-	-
	기타	45 (2.0)	△ 1.6	142 (3.6)	▽ -1.3	109 (2.3)	△ 0.3
겨울이불과 병행하는 것	담요	648 (28.2)	▽ -5.5	898 (22.7)	▽ -6.2	777 (16.5)	▽ -11.7
	전기담요	85 (3.7)	▽ -0.7	120 (3.0)	△ 6.2	434 (9.2)	△ 5.5
	기타	119 (5.2)	△ 6.6	467 (11.8)	▽ -7.5	202 (4.3)	▽ -0.9
	없음	1443 (62.9)	▽ -0.4	2472 (62.5)	△ 6.6	3249 (69.1)	△ 6.2
겨울 사용요	스폰지 요 1매	254 (11.1)	△ 2.2	526 (13.3)	▽ -3.9	443 (9.4)	▽ -1.7
	면요 1매	1056 (46.0)	▽ -1.6	1755 (44.4)	△ 8.2	2473 (52.6)	△ 6.6
	화섬요 1매	188 (8.2)	▽ -4.1	164 (4.1)	△ 1.1	243 (5.2)	▽ -3.0
	양모요 1매	143 (6.2)	△ 3.2	373 (9.4)	▽ -0.5	420 (8.9)	△ 2.7
	스폰지+면요 1매	314 (13.7)	▽ -2.5	444 (11.2)	▽ -1.5	456 (9.7)	▽ -4.0
	스폰지+화섬요 1매	113 (4.9)	▽ -2.7	87 (2.2)	▽ -0.3	90 (1.9)	▽ -3.0
	스폰지+양모요 1매	72 (3.2)	△ 0.2	133 (3.4)	▽ -0.7	125 (2.7)	▽ -0.5
	요 2매	104 (4.5)	△ 2.0	259 (6.5)	-	-	-
기타	51 (2.2)	△ 3.3	216 (5.5)	▽ -1.7	180 (3.8)	△ 1.6	
겨울 요와 병행하는 것	담요	546 (23.8)	▽ -0.9	905 (22.9)	▽ -10.0	606 (12.9)	▽ -10.9
	전기담요	536 (23.3)	▽ -6.1	682 (17.2)	△ 1.7	890 (18.9)	▽ -4.4
	기타	199 (8.7)	△ 5.1	547 (13.8)	▽ -3.2	500 (10.6)	△ 1.9
	없음	1014 (44.2)	△ 1.9	1823 (46.1)	△ 9.8	2630 (55.9)	△ 11.7

Table 5. 침구 사용시의 불편점

구분	연도	순 위		
		1	2	3
여름이불	1990년	흡습성	통기성	변색
	1996년	흡습성	통기성	변색
	2001년	흡습성	통기성	통기성
겨울이불	1990년	딱딱함	납작해짐	무거움
	1996년	보온성	무거움	납작해짐
	2001년	보온성	두께	두께
요	1990년	무거움	보온성	딱딱함
	1996년	딱딱함	무거움	납작해짐
	2001년	두께	두께	색·무늬·디자인

와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일치하는 결과이다. 겨울 이불에서는 보온성, 두께의 순이었다. 그리고 요에서는 두께, 색·무늬·디자인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항목이 구입에 있어서의 중시점과 일치하였다.

3.5.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침구의 일광소독의 빈도는 1개월에 1회(29.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주일에 1회(23.9%)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199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1주일에 1회(19.0%)의 순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이불의 소재별로 조사하였는 바, 면 이불의 경우 월 2~3회 36.4%, 월 5~10회 29.8%로서 일광 소독을 자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일 양국의 기후조건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침구의 재다듬질은 3년에 1회정도(27.9%)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3~5년의 빈도로 침구의 솜을 재다듬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전혀 재다듬질을 하지 않는 가정도 43.5%이었다.

Table 6. 침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90년과 1995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재다듬질의 간격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고 전혀 재다듬질을 하지 않는 가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

침구의 수납방법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73.7%가 장롱에 넣어 둔다로 응답하였으며, 장롱에 넣어두는 비율은 1990년도의 89.5%, 1995년의 89.7%에 비해서 낮아졌는데, 이는 침구의 수납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침대의 사용이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 론

1. 침실의 양식으로 침대사용은 47.8%, 온돌방의 사용은 45.4%를 나타내었고, 침실의 용도로는 침실로서 사용되고 있는 방은 침실 전용이 가장 많아 65.0%를 차지하였으나 34%에 해당되는 가정은 거실, 서재, 아동방 등과 겸용하고 있었다.

2. 침구의 구입처에 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49.0%가 침구 전문점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침구의 구입빈도는 4~6년(40.7%), 1~3년(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구의 구입빈도는 4~6년(40.7%), 1~3년(39.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년도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불은 홑이불1매(76.4%), 홑이불1매+타월1매(16.4%)의 순이었고, 이런 수치는 199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 사용하고 있는 이불은 여름철에 비해 극히 다양하여, 면이불 1매(37.3%), 양모이불 1매(10.5%), 화점이불 1매(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침구의 일광소독의 빈도는 1개월에 1회(29.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주일에 1회(23.9%)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199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1주일에 1회(19.0%)의 순으로 응답한 경우는 전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

참고문헌

엄희영 (1979) 온돌방에서의 침장 사용에 관한 연구 -고궁원을 중심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상석 (1984) 침장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人間-熱環境系編集委員會 (1989) “人間-熱環境系”. 日刊工業新聞社, 東京, p.239.
 水梨サワ子・宮川キクヨ・松本紀代子・庄司 光 (1972a) 寢具の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1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3(7), 247-281.
 水梨サワ子・宮川キクヨ・松本紀代子・庄司 光 (1972b) 寢具の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2報).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3(8),

323-328.
 松本紀代子・在間辛子 (1969) 寢具の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1報). 聖母女學院短期大學 研究紀要, 3, 17-25.
 酒井清子 (1972) 寢具の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1報). 名古屋女子大學 紀要, 17, 41-49.
 酒井清子 (1981) 寢具の着心地に関する調査研究(第2報). 名古屋女子大學 紀要, 27, 25-33.
 全日本わた寢裝品製造協同組合 (1984) “寢具について消費者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成秀光・李松子 (1992) 韓國のふとんに関する實態調査研究. 日本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3(5), 248-252.

(2002년 5월 10일 접수)